

## “추석이 코 앞인데...” 낙과·쓰러진 벼 바라보며 ‘망연자실’

태풍 ‘힌남노’에 농어가 피해 속출 ... 전남도 34억원 잠정 집계  
가두리 양식장·주택·선박 침수에 방파제 파손 등 피해 더 늘듯

“추석이 코 앞인데 씨알이 굵은 배들만 죄다 떨어졌어요. 7월에는 태풍 ‘송다’가 핏귀고 가더니 9월 추석 코 앞에 태풍이 몰아치고 가니 말짱했던 배 10개 중 2-3개는 떨어졌어요.”

〈관련기사 6면〉

김만진(69)씨는 6일 오전 9시께 순천시 낙안면 자신의 배 과수원에서 태풍 ‘힌남노’에 떨어진 배들을 주워 들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는 낙안면에서 20년 이상 배 농사만 지었다. 한 우물만 판 끝에 인근 농민들과 함께 ‘순천 낙안 배’를 ‘나주배’ 명성에 버금가는 고품질 배로 키워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태풍 피해를 본 탓에 얼얼한 그는 이 가득했다.

떨어진 배들을 굶어모으며 속상한 마음에 연신 혀를 차던 김씨는 “추석을 앞두고 전체 물량에서 겨우 10~20%밖에 수확 못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30%는 낙과 피해를 당했다. 나쁜나 아니라 낙안 배 농사짓는 농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로”라며 “일부는 풍수해 보험으로 충당되었지만 피해가 온전하게 복구되었느냐고 맥없이 말했다.

같은 날 진도군 지산면 들녘에서 만난 오창오(81)·남연순(여·71)씨 부부는 오전 6시부터 눈으로 달려나갔다가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버렸다. 밤사이 비가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아침도 거르고 나갔지만, 논바닥에 힘겹게 박혀 있던 벼들이 모조리 드러누운 벼들을 보고 울화통이 터져서이다.

남씨는 “올해로 50년째 꾀팍 않고 바깥양반과 농사만 짓고 있다. 태풍이 세다 하길래 맘속으론 각오는 했지만 7마지기(4600㎡) 눈에 심은 벼가 모조리 쓰러질 줄은 몰랐다”며 “쌀값은 자꾸자꾸 떨어지고 바깥양반은 아프다고 하고 태풍은 자꾸 찾아오고 농사 지을 맛이 안 난다”고 했다.

태풍 ‘힌남노’가 핏귀고 상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올 한해 구슬땀을 흘리며 키운 농작물들이 못 쓰게 된 탓에 농민들이 입은 상처는 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사유 시설 28억5000만원, 공공시설 5억5000만원 등 모두 3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는 사·군 지자체 보고가 이뤄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목포·고흥 등에서 주택 4동이 침수·파손됐고, 옥외광고물 32개와 지붕판넬 1개도 훼손됐다.

농업 분야 피해 규모는 1124ha에 달한다. 피해액도 20억5000만원에 이른다. 당장, 태풍에 쓰러진 작물은 벼 364ha·대파 30ha·배추 등 124ha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벼도 24ha에 달했고, 낙과 피해는 배 544ha·무화과 16ha·사과 등 18ha이다.

수산 분야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완도 전복양식장 가두리 50칸 1만5000마리와 육상양식 넘치 6만 마리도 태풍 피해를 봤고, 여수에서는 굴 5만 7000패, 홍합 4만3000패가 태풍에 휩쓸려갔다. 여수·영광·완도·영암에서는 선박 6척이 침수됐고, 무안·신안·영광의 염전 38어가 41곳도 태풍피해를 입었다.

신안 흑산 소사항 선착장·여수 돌산 상주항 방파제·완도 보길도 통섬계항 방파제·고흥 봉래에 내항 방파제, 여수 부잔교 11개 등도 파손됐다.

태풍으로 상수도관이 파손돼 전남지역 11개 마을 481가구의 물이 끊겨 현재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중이며, 13개 사·군 1만3400가구는 한 때 정전됐다. 한 때 통제됐던 천사대교·칠산대교·임자대교·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벌교대교는 통행이 재개됐고, 운행이 중단됐던 철도 3개 노선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상화됐다.

전남도는 6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지역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세심한 피해 조사를 위해 사·군과 협력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조사는 지역인 한 분 한분의 입장에서 서서 아주 작은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수산생물 피해는 하루 이틀이 지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지켜보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연휴 전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피해 현장에도, 사·군 공무원들 비롯, 군부대, 경찰, 소방, 자원봉사 등 1만 7000여명의 지원 인력과 덤프, 굴삭기, 정소차 등 526대의 복구 장비를 조기에 투입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도 침수·강풍·정전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는 폭우 속에 2명



강한 비와 많은 비를 뿌린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남지역 상수도 파수 농가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지나간 8일 오전 순천시 낙안면 이곡마을의 한 배농가에서 농민이 비에 떨어진 배를 든 채 한숨을 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냉장고가 날아갔고 전국에서 8만9180호가 정전 피해를 보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경북 포항에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 특히 포항 남구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려 간 주민 8명이 실종됐으며 남성 한 명이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 시흥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

한국전력은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부산·울산, 대구, 제주, 광주·전남, 경남 등에서 총 8만 9180호(199건)가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88.5%인 7만 8890가구가 복구됐으며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사태·침수 위험으로 전국에서 2661세대 2463명이 사전 대피했으며 현재 2141세대 2906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작물 피해는 경남 477ha, 전남 411ha, 제주 280ha, 경북 115ha 등 총 1320ha이며 추가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동물 진찰·입원비 사전 게시...수술비 안내 의무화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토록 한다.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동물병원 서비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한다.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한경, 광주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간인 인삼 사포닌 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피부탄력(피부탄력)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